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 졸업

지가 있으며 자음군단순화¹⁾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공명음을 포함하되 양순음이나 연구개음을 포함하지 않은 ‘ㄴ’, ㄴᄃ, ㄴᄂ, ㄴᄁ, ㄴᄀ’은 공명음 ‘ㄴ’과 ‘ㄹ’이 남는다. 둘째, 양순음이나 연구개음을 포함하되 공명음을 포함하지 않은 ‘ㄱ’, ㄴᄁ’은 연구개음 ‘ㄱ’이나 양순음 ‘ㅂ’이 남는다. 셋째, 공명음과 양순음이나 연구개음도 포함한 ‘ㄴ’, ㄴᄃ, ㄴᄂ, ㄴᄁ’은 그 자음군단순화 양상이 경우에 따라 다르다. ‘ㄴᄃ’은 ‘ㄴ’, ‘ㄴᄂ’은 ‘ㄹ’(다만, ‘ㄴᄁ’은 ‘ㅂ’), ‘ㄴᄀ’은 ‘ㅍ’, ‘ㄴᄂ’은 후행자음이 연구개음일 때 ‘ㄹ’, 그 이외의 자음일 때는 ‘ㄱ’이 남는다.

그러나 이 모든 자료를 조사하기에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처음 관심을 가졌던 ‘ㄴᄃ’과 같은 ‘ㄹ’계 어간말자음군 분석에 집중할 것이며 어간말자음군 추출을 위해 자음군단순화 양상에 주목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ㄹ’계 어간 말 자음군에는 ‘ㄴ’, ㄴᄃ, ㄴᄂ, ㄴᄁ, ㄴᄀ, ㄴᄁ’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 자음군의 활용형을 살펴봄으로써 자음군단순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기저형에 대해 밝혀낼 것이다. 또한 그 중 표준어 ‘ㄴᄃ’에 대응되는 자음군의 단순화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ㄴᄃ’/‘ㄴᄁ’과 같이 표준어에서 ‘ㄴᄃ’의 자음군을 가지는 것이 경상도방언에서는 ‘ㄴᄁ’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가설 설정

그렇다면 봉화 지역어의 ‘ㄹ’계 어간말자음군 종류와 자음군단순화 양상을 어떻게 설정해볼 수 있을까. 일단 ‘ㄹ’계 어간말자음군 종류로는, ‘ㄴ’, ㄴᄃ, ㄴᄂ, ㄴᄁ, ㄴ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봉화 근방인 안동 서후 지역어의 어간 말 자음군에는 ‘ㄴᄃ’이 없으므로,³⁾ ‘ㄹ’계 어간말 자음군에서 ‘ㄴᄃ’은

1) 김성규·정승철(2005),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pp.241-242. 참고.

2) 다만 체언어간에서는 후행 자음에 관계없이 ‘ㄱ’이 남는다.

3) 박종덕(2000), 안동지역어의 특이한 음운 변동 현상 연구: 현대 국어 표준어의 음운 변동 현상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25, p.92.

제외시켰다. 또한 ‘외곶’과 같이 극히 제한적인 체언에서 사용되는 자음군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해 제외시켰다.

또 봉화지역어의 ‘ㄹ’계 어간말 자음군은 활용 및 곡용에 있어서는 어간말 음절구조가 열려 있을 때(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앞)는 있는 그대로 실현되며, 어간 말 음절구조가 닫혀 있을 때(휴지, 자음 조사나 어미 앞)에는 ‘ㄹ’로의 자음군단순화를 겪는다고 가정했다. 단, ‘ㄹ’은 ‘ㄱ’으로 단순화되고 ‘ㄹㅎ’의 경우는 모음어미나 조사 앞에서 ‘ㅎ’ 탈락⁴⁾ 때문에 ‘ㄹ’로의 자음군단순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어에서의 자음군 단순화 양상과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p>‘ㄹ, ㄹ, ㄹ, ㄹ, ㄹ’→‘ㄹ’ ‘ㄹ’→‘ㄱ’</p> <p>〈봉화지역어 자음군단순화〉</p>	<p>‘ㄹ, ㄹ, ㄹ’→‘ㄹ’ ‘ㄹ’→‘ㄱ’ ‘ㄹ’→‘ㄹ’(단 ‘ㄹ’은 ‘ㄱ’) ‘ㄹ’→‘ㄱ’ ‘ㄹ’→‘ㄹ’(후행자음이 연구개음) →‘ㄱ’(후행자음이 연구개음x / 해당단어가 체언일 때)</p> <p>〈표준어 자음군단순화〉</p>
--	--

자음군단순화는 어간의 말음이 자음 둘로 이루어진 자음군일 때 그러한 자음군이 음절말 위치할 때 자음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고 음절 종성에 위치하게 되는 조건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또는 어미와 연결될 때⁵⁾ 일어나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앞에서는 그 기본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표준어에서도 ‘읽어래일거라’와 같이 지켜지는 현상이다. 이 가정에 근거한다면, 모음 조사나 어미 앞에서의 활용, 곡용형을 조사함으로써 어간의 기본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명음과 모음사이에서 ‘ㅎ’탈락을 겪었기 때문이다.

5) 김성규·정승철(2005), 위의 책, p.237, p.241 참조.

그러나 자음이나 휴지 앞에서는 ‘ㄹ, ㄼ, ㄽ, ㄾ, ㄿ’이 모두 ‘ㄹ’로 단순화되고, ‘ㄼ’은 ‘ㄱ’으로 단순화된다고 가정하였다. (1) 자음군의 종류나 그 단순화의 양상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경상도 방언에서는 용언 어간말 자음군 ‘ㄹ, ㄼ’은 후행자음에 관계없이 앞에 있는 자음 ‘ㄹ’이 남는다⁶⁾는 것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본래 표준어에서는 ‘ㄹ’은 후행자음이나 어간의 품사에 따라 ‘ㄹ’이 탈락하고 ‘ㄱ’이 남는 경우가 있고, ‘ㄼ’ 중 ‘뽕-’은 ‘ㄹ’이 탈락하고 ‘ㄴ’이 남는다. 그러므로 봉화 지역어의 ‘ㄹ, ㄼ’은 ‘ㄹ’로 단순화되므로, 표준어의 자음군 단순화 양상과는 다른 것이다.

‘ㄼ, ㄽ, ㄾ’:	‘ㄹ, ㄼ, ㄾ’
‘ㄱ, ㄴ, ㄷ’:	‘ㄹ’
〈표준어와 동일〉	〈표준어와 다름〉

(2) 또, 박종덕(2000)⁷⁾에 따르면 안동 서후지역어는 겹받침 줄이기(자음군단순화)에서 ‘ㄼ, ㄽ, ㄾ’은 현대국어 표준어 자음군 단순화 양상과 똑같이 자음이나 휴지가 후행할 때, ‘ㄱ, ㄴ, ㄷ’로 단순화되지만 ‘ㄹ, ㄼ, ㄾ’은 표준어와 달리 자음이나 휴지가 후행할 때는 모두 ‘ㄹ’로 단순화 된다. 이 규칙이 필연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봉화 지역어에도 안동 지역어와 동일한 양상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규칙을 바탕으로 표준어와 동일하게 자음군단순화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위와 같이 체계를 나눴고 후술될 조사항목도 이 체계에 따라 배치하였다.

그 외에도 경북 봉화군이 강원도와 인접해있기에, 참고 사항으로 (3) 강원 방언의 유음이 선행하는 어간말자음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김봉국(2002)에 따르면, 강원도 남부지역 방언의 자음군단순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6) 김성규·정승철(2005), 위의 책, p.242.

7) 박종덕(2000), 위의 논문, p.93.

자음군		지역	유지 자음				탈락 자음			
			江陵	三陟	旌善	原州	江陵	三陟	旌善	原州
장애음	ㅁㅁ	ㅁ				ㅁ				
	ㄱㅁ	ㄱ				ㅁ				
비음	ㄴㅁ	ㄴ				ㅁ				
	ㄴㅁ	ㄴ				ㅇ				
유음	ㄹㅁ	ㄹ		ㅁ, ㄹ		ㅁ		ㄹ, ㅁ		
	ㄹㅁ	ㄹ		ㄱ		ㄱ		ㄹ		
	ㄹㅁ	ㄹ				ㅇ				
	ㄹㅁ	ㄹ				ㅁ				
	ㄹㅁ	ㄹ				ㅇ				
	ㄹㅁ	ㅁ				ㄹ				

〈강원도 남부지역 자음군단순화 양상〉⁸⁾

우선, 유음이 선행하는 자음군 종류는 용언에서만 존재하며 ‘ㄹㅁ, ㄹㅁ, ㄹㅁ, ㄹㅁ, ㄹㅁ, ㄹㅁ’이 있는데, ‘ㄹㅁ, ㄹㅁ, ㄹㅁ’은 후행자음이 탈락하며, ‘ㄹㅁ’은 선행자음이 탈락한다. ‘ㄹㅁ, ㄹㅁ’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ㄹㅁ’의 경우 강릉, 삼척, 정선에서는 ‘ㄱ’이 탈락(표준어와 차이가 남)하고, 원주에서는 ‘ㄹ’이 탈락한다. ‘ㄹㅁ’의 경우 강릉, 삼척에서는 ‘ㅁ’이 탈락하고 정선과 원주에서는 단어에 따라 ‘ㅁ’또는 ‘ㄹ’이 탈락한다.(‘ㅁㅁ’의 경우 강릉, 삼척은 [ㅁㅁ:른대], [ㅁㅁ 부네로] 나타나고 정선은 [ㅁㅁ:른대~ㅁㅁ:는대], 원주는 [ㅁㅁ:는대]로 실현된다. 강릉, 삼척어가 표준어의 자음군단순화와 차이를 보인다.)

이 사례를 통해, 봉화 지역어에서도 ‘ㄹㅁ, ㄹㅁ, ㄹㅁ’의 경우 후행자음 ‘ㅁ’, ‘ㅇ’, ‘ㅁ’이 탈락할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또 ‘ㄹㅁ’과 ‘ㄹㅁ’에 있어서는 ‘ㄹ’탈락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 것이다.

8) 김봉국(2002), 강원도 남부지역방언 어간말자음군의 음운론, 《국어학》 39, 국어학회, p.187.

제보자 2. 이일시(여, 77세)

조사자 이름 박혜민, 장지수, 강민호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조사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닭실마을)	
조사 기간 2013년 11월 3일 11시 57분~ 12시 17분	
제보자 이름 이일시 (여)	나이 77 세 (1937 년생)
출생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춘계길 24번지 (농촌·어촌·광산촌·도시)	
거주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선대 거주지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온내리
생업 농업	선대 생업 공무원
학력 초졸	병역 (복무지) (년)
가족 사항 남편	
제보자 선정 과정: 방언조사 둘째 날, 닭실마을을 방문하게 되었고 조사를 위해 자택 방문을 하였는데, 마을제사가 있어 노인정이나 자택에 안 계셨음. 두 차례 방문 후에 제보자를 만나 조사를 진행함.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 방언조사 경험이 있으셨으므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함. 질문을 통해서도 표준어 형태가 많이 나왔고 자유발화에서 방언형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음. 닭실마을에서 3대째 거주.	
조사 내용어간 말 ‘ㄹ’계 자음군단순화 (음운)	
녹음기 O 마이크 X 기록 매체 핸드폰 녹음 및 질문지 작성	
조사 지점의 개관 닭실마을은 청암정과 서천계곡이 있는 닭 모양의 아름다운 마을로 안동 권씨의 집성촌. 방송 촬영이 많아 표준어에 대한 노출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타지에서 닭실마을에 와서 살고 있는 주민도 존재.	

조사 시에는 표준어와 자음군단순화 양상이 동일한 자음군과 그렇지 않은 자음군으로 나누고 체언과 용언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체언에서는 단독으로 쓰일 경우, 자음 조사, 모음 조사 앞에서 쓰일 경우로 나뉘 항목을 작성하였고 용언에서는 자음 어미 앞, 모음 어미 앞, ‘으’ 계열 어미 앞에서 쓰일 경우의 항목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자음군이 있는 체언 중 동사의 활용으로 만들어진 ‘삶, 앓, 기웁, 읊, 읊, 이뽴’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항목에 나열한 자음 어미(조사)와 모음 어미(조사) 모두를 조사하지 못하였고 단어당 하나 이상씩을 조사하려 노력하였다.

II. 경북 봉화 지역어 ‘ㄹ’계 어간말자음군 단순화

일단 체언과 용언으로 나뉘 그 양상을 분석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차미경(1992)에서 연구한 문경어 어간말자음군에 대한 정보도 포함시킬 것이다. 용언에서는 표준어와 같은 모습을 보일 ‘ㄹ, ㄹ, ㄹ’류와 다른 모습을 보일 ‘ㄹ, ㄹ, ㄹ’ 두 종류로 나누어 표준어와 비교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봉화어, 문경어, 표준어의 어간말자음군 단순화 설명을 위한 원리로는 배주채(1989)의 강도 설정에 근거하고자 한다.

$$\text{비음} > \text{유음} \gtrless \left| \begin{array}{c} \text{폐쇄음} \\ -\text{cor}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l} \left| \begin{array}{c} \text{폐쇄음} \\ +\text{cor} \end{array} \right| \\ \text{후음} \end{array} \right.$$

즉, 대체로 개구도가 작고 공명도가 큰 쪽이 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자음군 중에서 강도가 큰 쪽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봉화어, 문경어의 ‘ㄹ, ㄹ, ㄹ’의 단순화 현상이 표준어와 차이가 있음에도 ‘강도’라는 단일 기준을 통해 무리할 수 없이 설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채택되

었다.⁹⁾

1. 체언

1) ㄹ

			-도	-이
닭	봉화어	달~닥	닥또	다기/달기지
	문경어	달	달또	달기
	표준어	닥	닥또	달기/ 다기
칠	봉화어	칙		
	문경어	칠	칠또	칠기
	표준어	칙	칙또	치기
흙	봉화어	흙~진흙		cf. 흘그로
	문경어	흙	흙또	흙기
	표준어	흙	흙또	흙기/흐기

표준어에서 ‘ㄹ’을 포함한 체언어간은 후행자음에 상관없이 ‘ㄱ’이 남는다. 또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표준발음법 받침의 발음 제14항에 따르면, [달기], [달글]과 같이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¹⁰⁾ 하지만 화자들은 [다기], [흐글]과 같이 기저형을 ‘ㄱ’형으로 생각해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사한 봉화어의 경우도 ‘ㄱ’형과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두 가지 형태가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봉화지역어에서 ‘ㄹ’을 가진 체언의 단일 발음은 단독으로 쓰일 때는 문경어와 마찬가지로 [달], [흙]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자음 조사가 붙으면 [닥또], [다까지고(닥+가지고)]처럼 [닥]으로 나타났다. 또

9) 차미경(1992), 문경지역어의 어미자음군 연구, 《강남어문》 7, pp.156-157 참고.

10) 국립국어원, ‘표준어규정’, 제2부 표준발음법, 제4절 받침의 발음, 제14항, 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02_0204.jsp.

‘달갈’은 [다갈]로 나타났다. 체언 어간이더라도 후행자음에 상관없이 ‘ㄱ’이 탈락하고 ‘ㄹ’이 남는다고 가정했었는데, 그와는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우선 체언 단독으로 쓰일 때는 ‘ㄹ’이 살아남지만, 자음 조사가 붙을 경우에는 ‘ㄱ’이 남게 되고, ‘알’이라는 어휘형태소가 붙었을 때도 ‘ㄱ’이 남게 된다. 이처럼 ‘ㄱ’이 남는 사례들은 표준어와 같이 체언어간에서는 ‘ㄹ’이 ‘ㄱ’으로 단순화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ㄱ’과 ‘ㄹ’ 사이에서 섞여 사용되고 있고 명확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정의해볼 수 있다. 또한 배우체가 제시한 강도개념을 적용해보더라도 유음인 ‘ㄹ’과 [폐쇄음 -cor]인 ‘ㄱ’이 비슷한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자, 지역에 따라 선택적으로 ‘ㄹ’과 ‘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¹¹⁾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혹은 표준어는 모음어미 앞에서 탈락되었던 자음이 살아나 다음 음절 초에 재생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봉화어의 [다기], 표준어의 [호기], [다기]와 같은 사례를 보았을 때 탈락되었던 자음이 재생되지 않고 종성에서 단순화된 자음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봉화어, 심지어 표준어 일부분에서도 원칙과 달리 어간의 재구조화¹²⁾과정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분석해볼 수도 있다.

정리하자면 ‘닭’의 예시를 통해 봉화지역어에서는 체언어간에서 ‘ㄹ’은 단독으로 쓰일 때 ‘ㄹ’로 단순화되고,¹³⁾ 그 외의 경우에는 ‘ㄱ’또는 ‘ㄹ’로 불규칙하게 나타난다고 정리할 수 있다.

2) ㄹ

			-개	-이
여덟	봉화어	여덟	여덟개	
	문경어	여덟	여덟개	여덟비
	표준어	여덟	여덟개	여덟비

11) 차미경(1992), 위의 논문, p.160.

12) 위의 논문, p.158. 내용을 응용.

13) ‘찰’이 [체]으로 발음되고 있었지만, 조사 정황상 명확한 결과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봉화어에서 어간말에 ‘ㄹ’을 가진 체언은 ‘ㄹ’로 발음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체인 어간 말에 ‘ㄹ’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표준어와 동일하게 ‘ㄴ’이 탈락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용언

1) ㄹㅁ, ㄹㅅ, ㄹㅈ

		-다	-고	-지
삶다	봉화어	쌘따	쌍꼬	쌘찌
	문경어	쌘따	쌘꼬	쌘찌
	표준어	삼따	삼꼬	삼찌
줍다	봉화어	점따 ¹⁴⁾	점께	
	문경어	점따	점꼬	점찌
	표준어	점따	점꼬	점찌

· ‘훤다’ → 할따(표준어, 문경어), 할타 먹는다(봉화어)

‘ㄹ’이 들어 있는 어말자음군은 예외 없이 둘째 자음인 ‘ㄹ’이 발음되는데, 표준어, 봉화어, 문경어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음인 ‘ㄹ’보다 비음인 ‘ㄴ’의 강도가 세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ㄹ’을 어말로 갖고 있는 낱말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표준어, 문경어, 봉화어도 아마 모두 ‘ㄹ’로 발음될 것이다.

		-다	-고	-지
닿다	봉화어			딸치
	문경어	딸타		
	표준어	달타	달코	

14) ‘ㄹ’이 섞인 소리가 났음.

		-다	-고	-지
싫다	봉화어	실타		
	문경어	실타		
	표준어	실타	실코	실치
끓다	봉화어		끓코	끓차네
	문경어			
	표준어		끓코	

‘ㄹㅎ’이 들어 있는 어간말자음군은 봉화어, 문경어, 표준어 모두에서 ‘ㄹ’로의 자음군단순화를 겪는다. 다만 자음군에 포함되어 있는 ‘ㅎ’ 때문에 이어 나오는 자음을 된소리화 시키지 않고 ‘실코’와 같이 기음화하는 역할을¹⁵⁾ 한다.

2) ㄹㄷ, ㄹㅁ, ㄹㅂ

		-다	-고	-지
읽다	봉화어		일꼬	일찌
	문경어	일따	일꼬	일찌
	표준어	익따	일꼬	익찌
말다	봉화어	말따	말꼬	
	문경어	말따	말꼬	말찌
	표준어	막따	말꼬	막찌
박다	봉화어	발따	발꼬	발찌
	문경어	발따	발꼬	발찌
	표준어	박따	발꼬	박찌

봉화지역어(그리고 문경어에서도) 용언 어간말의 ‘ㄹ’은 예외 없이 ‘ㄹ’로 자음군단순화를 겪고 있다. 이와 비교해 표준어에서는 연구개음인 ‘ㄱ’ 앞에

15) 차미경(1992), 위의 논문, p.159.

서만 ‘ㄱ’이 탈락해 ‘ㄹ’이 남고, 그 외의 경우에는 ‘ㄹ’이 탈락하고 [익따, 막따]와 같이 ‘ㄱ’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다	-고	-지
뚫다	봉화어	뚫따		
	문경어			
	표준어 (뚫-)	뚫타	뚫꼬	
밟다	봉화어		밟꼬	
	문경어	밟따	밟꼬	밟찌
	표준어	밟따	밟꼬	밟찌
넙다	봉화어	넙따	넙꼬	
	문경어	넙따	넙꼬	넙찌
	표준어	넙따	넙꼬	넙찌

		-다	-고	-지
을다	문경어	을따	을꼬	을찌
	표준어	을따	을꼬	을찌

‘래’의 경우 ‘넙다’와 같은 경우에는 표준어와 문경어, 봉화어 다 동일하게 [넙꼬, [넙찌]와 같이 ‘ㄹ’로 단순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밟다’의 경우 표준어에서는 예외적으로 ‘ㅂ’이 살아남지만, 문경어와 봉화에서는 ‘넙다’와 마찬가지로 ‘ㄹ’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래’의 ‘을다’는 봉화어 조사 결과는 도출하지 못했지만, 문경어와 비교해 보았을 때 표준어에서는 ‘ㅂ’으로 단순화를 겪으나 문경어에서는 ‘ㄹ’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봉화어에서도 ‘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ㄹ’로 실현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배주채(1989)의 설명을 적용해보자면, 유음 ‘ㄹ’과 [폐쇄음 -cor]인 ‘ㅂ’의 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밟다’의 표준어 자음군단순화에 대한 설명이 가능

하며 동시에 ‘ㄹ’이 선택된 봉화어, 문경어의 경우에도 어울린다고 분석해볼 수 있다.

III. 가설 검증

- (1) a. 봉화지역어의 ‘ㄹ, ㄹᄇ, ㄹᄃ’은 표준어와 동일하게 ‘ㄱ, ㄴ, ㄷ’로 자음군단순화를 겪었고,
b. ‘ㄹ, ㄹᄃ, ㄹᄃ’은 ‘ㄹ’로의 자음군단순화를 겪었다.

‘ㄹᄃ’은 [알른게]와 같이 ‘ㅎ’이 탈락했고, [말치], [실타], [끌꼬], [끌차네]에서는 ‘ㅎ’이 후행 자음을 격음화시키고 탈락한 흔적도 발견할 수 있다. ‘ㄹᄃ’의 경우에는 [썰따], [썰끼]처럼 ‘ㄹ’이 탈락했고 [쌍꺾다]처럼 후행하는 연구개음의 영향으로 연구개음화를 겪은 흔적도 있었다. 다만, ‘ㄴ’앞에서는 두 제보자가 각각 ‘삶나?’를 [썰라]/[썰나]로 발음했고, ‘삶는다’는 [썰는다]/[썰른대]로 발음했다. 한 사람이 ‘삶’에서 ‘ㄹ’을 탈락시키기도 하고, ‘ㄱ’을 탈락시키기도 하는데 이 현상은 단순한 혼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원래 ‘ㄹ’이 탈락하고 ‘ㄱ’이 남는 것이 맞으나 다른 ‘ㄹ’계 자음군에서 ‘ㄹ’을 남겨두는 식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발음의 편이를 위해 ‘ㄹ’을 사용했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세세한 오류나 조건들을 감안했을 때, 봉화지역어에서의 ‘ㄹᄃ, ㄹᄇ, ㄹᄃ’은 표준어와 동일한 방식의 자음군단순화를 겪는다는 가설 a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ㄹᄃ’은 [무르다]를 제외하고는 [말따], [늘른대], [발제](明)처럼 ‘ㄱ’이 탈락한다. 표준어에서는 [막따], [늘는다], [박제]로 나타난다. ‘ㄹᄃ’과 ‘ㄹᄃ’도 [뜰른대], [여덜], [발따](踏), [울린대]와 같이 ‘ㄴ, ㅍ’이 탈락하고 ‘ㄹ’이 남는다. 물론 표준어에서도 [여덜]과 같이 ‘ㄹᄃ’이 ‘ㄹ’로 자음군단순화를 겪는 것이 존재하지만 이는 체언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였고, 용언 어간에서는 [밥따], [밥꼬], [음는다]와 같은 예외들이 존재했다. 봉화지역어에서는 모든 ‘ㄹᄃ’과 ‘ㄹᄃ’은 ‘ㄹ’로의 자음군단순화를 겪는다. 다만 ‘ㄹᄃ’의 경우는 체언 어간에서

항상 ‘ㄹ’로 실현되지는 않았고 [닥되]와 같은 예외가 발견되는 등 표준어와 유사하거나 둘 사이에서 혼용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주어진 가설 b를 “용언 어간말 자음군 ‘ㄹ, ㄼ, ㄽ’은 ‘ㄹ’로의 자음군단순화를 겪는다.”는 식으로 변경하면 자료에 부합하는 설명이 가능하다.

(2) 기저형은 대부분이 표준어와 같다.

활용/곡용 시에 모음어미 앞에서 모두 제대로 실현이 되었고 연음법칙을 적용해 그를 바탕으로 분석한 기저형들은 대부분 표준어와 같은 형태를 보였다. 다만, 예외 두 가지가 존재한다.

첫째는 이 조사의 동기였던 ‘뚫’과 ‘뚫-’이다. 표준어에서는 ‘뚫’을 기저형으로 가지면서 [뚫어라]와 같이 활용되지만, 봉화 지역어에서는 [뚫버라], [뚫버야]제로 활용되면서 ‘뚫-’을 기저형으로 갖는다.

두 번째는 ‘물-’에 대한 것이다. 대표용언으로 자료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조사 당시 자음어미 앞에서는 [무르다], [무르제]와 같이 ‘무르-’를 기저형으로 가지고 모음어미 앞에서는 [물어개가 아닌, [물러개로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확신할 수 없는 것은 모음어미 앞에서의 활용이 과연 모음어미 앞인가 하는 것이다. [물러개는 ‘물어서’의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어가’를 모음어미로 파악한다면 ‘ㄹ’이 첨가 혹은 덧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게다가 기저형을 ‘물-’로 보아야 할지, ‘뭍-’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물- ㄹ’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단단하지 않다’는 뜻으로 쓰이는 ‘무르다’와 혼동했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단단하지 않다’는 뜻으로도 ‘무르다’를 사용한다면 표준어보다 그 뜻의 범위가 넓다고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봉화 지역어에서 표준어의 ‘물-’에 대응하는 용언 어간은 ‘무르-/물-ㄹ’의 다중기저형을 가진다고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부수적으로, ‘꺾’의 ‘ㅎ’은 [꺽였다], [꺽았다]와 같이 모음어미 앞에서도 사라졌다.

(3) ‘똥-’과 ‘똥’

【똥다< 똥다< 똥다< 똥다< 법화>】¹⁶⁾

관심의 시작점이었던 ‘똥-’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처음에는 표준어에서 ‘똥’로 나타나지만 안동 서후 지역어에서는 ‘똥-’으로 나타나고, 봉화 지역어에서도 아마 ‘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이후 조사결과를 보고나서 ‘똥-’이라는 형태는 봉화지역어의 ‘ㄹᄇ’ 자음군 내에 있지 않고 ‘ㄹᄇ’ 자음군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기저형이 표준어와 그 형태가 달랐던 것이다. 그 원인은 위의 자료에서 보여지듯이 통시적인 요소가 첨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원형인 ‘똥다’가 봉화어에 남아있었고 그 증거를 [똥버세]와 같은 활용형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그 의미는 같으나 속하는 어간말 자음군의 분포가 표준어와 다를 뿐이었던 것이다.

IV. 결론

‘똥-’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어, 봉화지역어의 ‘ㄹᄇ’계 어간말 자음군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준어와의 비교, 참고사례인 문경어를 통해 분석했었고 그 결과 봉화지역어의 ‘ㄹᄇ’계 어간말 자음군 종류로 ‘ㄹᄇ, ㄹᄇ, ㄹᄇ, ㄹᄇ, ㄹᄇ, ㄹᄇ’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ㄹᄇ’은 ‘ㄹᄇ’으로 나머지는 ‘ㄹᄇ’로의 자음군 단순화를 겪었다는 식으로 정리가 가능했다. 다만, 체언 어간 ‘ㄹᄇ’이나 ‘똥-’이 ‘무르-/물-ㄹᄇ’로 나타나는 등의 예외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ㄹᄇ’을 제외하고는 ‘ㄹᄇ’계 어간말 자음군은 ‘ㄹᄇ’로 자음군단순화가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 강원방언의 사례와 배주채(1989)의 이론을 접목해 어간말자음군 ‘ㄹᄇ’과 ‘ㄹᄇ’에서 ‘ㄹᄇ’이 아닌 ‘ㄹᄇ’과 ‘ㄹᄇ’으로 변할 가능성도 살필 수 있었으나 표준어 자음군단

1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똥다’, 어원풀이 참고,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순화 설명에 더 적합한 틀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ㄹ’계 어간말 자음군을 표준어와 동일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자음군단순화에 대해 살펴보려 했지만 실제형이 모두 ‘ㄹ’이다보니 그 체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표준어와 다르게 ‘ㄹ’로의 자음군단순화를 보이는 [발때], [말때와 같은 항목들만을 두 번째 부류인 ‘ㄴ, ㄷ, ㄹ’에서 다루었다면 그 체계가 더 잘 나타났을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활용이나 곡용을 겪은 형태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어미나 조사를 붙이면 뭐라고 하시나요?’와 같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인지, 제보자들이 조사할 때 어려움을 많이 표했다. 때문에 자유발화에서 활용형, 곡용형을 얻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자음 어미나 조사, 모음 어미나 조사, 매개 모음 어미나 조사를 각각 하나씩은 조사했어야 했는데,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미흡한 점이다. 이 때문에 조사 자료의 체계성이 다소 떨어졌다.

그리고 기대했던 ‘똥-’에 대해서는 그 분류가 다르다는 것 이외의 결과를 얻기는 힘들었다. 그럼에도 조사 시에 가설을 따르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비교 분석해보며 두 자료, 그리고 예외에 대해서도 꼼꼼히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경상도 방언에서 ‘ㄴ, ㄷ, ㄹ’은 표준어와 자음군단순화 형태가 다르다는 사실에서 더 나아가 봉화지역어 어간말자음군 단순화의 체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봉화지역어 ‘용언 어간’에서 어간말자음군 ‘ㄴ, ㄷ, ㄹ’은 표준어와 동일하게 ‘ㄱ, ㄴ, ㄷ’로 자음군단순화를 겪고, ‘ㄴ, ㄷ, ㄹ’은 일부분에서 표준어와 다르게 ‘ㄹ’로의 자음군단순화를 겪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성규·정승철(2005),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2. 논문

김봉국(2002), 강원도 남부지역방언 어간말자음군의 음운론, 《국어학》 39, 국어학회, pp.182-186.

박종덕(2000), 안동지역어의 특이한 음운 변동 현상 연구: 현대 국어 표준어의 음운 변동 현상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25, pp.92-93.

배주채(1989), 음절말 자음과 어간말 자음의 음운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미경(1992), 문경지역어의 어미자음군 연구, 《강남어문》 7, pp.152-164.